

# 재일작가의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 연구\*

양 명 심\*\*

(e-mail : ms0611@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의 지형도: 조선인의 전쟁과 식민지 체험 |
| 2.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와 '재일문학' | 5. 나가기                                |
| 3. 일본사회 내 재일과 계급의 교차성   |                                       |

키워드 : 在日朝鮮人(Korean Residents in Japan), 二重マイリティ(Double Minority), 叙事(Narrative), 内部的差別(Internally discrimination), 交差性(Intersectionality)

## 1. 들어가기

재일문학<sup>1)</sup>이 일본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1980년대에 들어 일본문학사, 일본문학 전집 등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며 일본문단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재일작가들의 작품은 '재일조선인 문학' 또는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으로 명명되며 일본문학의 하위분야이자 마이너리티 문학<sup>2)</sup>으로 규정되어 연구되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747)

\*\*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재일조선인문학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또는 한국인)이 '일본어'로 '일본'의 독자를 향해 '재일조선인'을 주제로 쓴 작품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자이니치 문학, 재일조선인 문학, 재일한국인 문학,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재일코리안 문학으로,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문학, 재일한국·조선인문학, 재일조선인일본어문학 등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재일조선인문학을 줄여서 '재일문학', 재일조선인작가를 줄여서 재일작가'로 표기하도록 한다.

1945년 이후 재일문학의 역사는 민족과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던 초기 민족주의 시대 이후, 남한/북한/일본 등 민족(국가) 정체성 문제를 두고 고민했던 1960~70년대를 거쳐, 개인적·지역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탈민족화와 탈영토화 경향을 노출하는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달수(金達壽), 김석범(金石範), 김시중(金時鐘)으로 대표되는 1세대 작가들, 이회성(李恢成), 김학영(金鶴泳), 양석일(梁石日) 같은 2세대 작가들, 이양지(李良枝), 유미리(柳美里), 현월(玄月),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와 같은 3세대 작가들은 소위 재일문학의 흐름을 잇는 주류작가들로서 일본문단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이름을 올리며 문학사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재일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십여 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주류화와 그 외 다수 작가들의 주변화를 통해 재일문학의 영역을 축소하고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동안 재일작가들은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 문제에 노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다. 김석범, 정승박(鄭承博), 이기승(李起昇), 김학영 같은 작가들이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에 오르고, 또 이회성과 이양지, 유미리가 그 상을 수상한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민족(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있었다. 특히 재일문학 연구가 국가나 민족 정체성 범주를 중심으로 수행된 것은 그들의 서사 작품들을 더욱 더 그 범주들에 의해 의미화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주류의 재일작가들 이외에 재일문학의 주변에 위치해 온 다수의 재일작가들이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민족이나 국가, 조국 문제를 배경에 두고 그들이 체험한 재일로서의 예민한 감각을 토대로 꾸준히 작품을 저술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문학의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재일서사들을 ‘이중의 마이너리티’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주변에 위치했던 재일서사들이 우선 ‘재일’이라는 소수자(minority)의 시점(국가, 민족), 그리고 일본문단으로부터의 소외와 재일내부의 위계화에 따른 또 다른 소수자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2) 일본에서 마이너리티의 개념은 민족이나 언어, 종교 등의 기준을 묻지 않고, 약자를 그대로 마이너리티로 파악하는 사회학적인 용법과 민족이나 언어, 종교 등의 면에서 다수파와 다른 특징을 지닌 소수파로 보는 비사회학적인 용법의 두 종류로 정의된다.(유효중(2007), 이와마 아키킨·박은미 옮김,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한울, p.49)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일본사회 내의 소수자, 소수집단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을 마이너리티라 칭하고, 그들에 의한 문학을 가리켜 마이너리티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재일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회성, 이양지,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등 아쿠타가와상을 비롯한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민족의식이나 정체성 인식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재일작가들이 한국(북한) 및 한민족(의식)과 맺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관계의 견고함/느슨함, 고향(고국, 조국)에 대한 기억/망각, 이주국에서의 적응/부적응 상태 등은 연구자들의 중심적 이슈였다. 이는 주류 재일작가들의 서사에 대한 관심과 심층적 연구를 통해 재일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그 서사가 갖는 의미와 의의를 파헤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전후 민족과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과 1970년대 남한/북한/일본 등 민족(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천착, 그리고 1980년대 개인적·지역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작품의 탈민족화와 탈영토화 등으로 나누어 기술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재일’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성과 복합성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작가의 작품에서 국가와 민족 정체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중의 마이너리티’에 위치한 재일서사의 역사성 즉 민족적·국가 중심적 의미를 수용하면서 특히, 1970년대 초 재일문학에서 민족과 조국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났던 시기에 이와는 이질적인 성격의 작품으로 평가받은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일서사의 다양한 층위와 그 변용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와 ‘재일문학’

일본문학사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후반 처음 사용되었지만, 이 무렵 재일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재일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이 시기 들어 일본문학 전집이나 일본문학사에서 재일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고,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항목을 두고 재일문학을 일본문학의 하위 영역으로 전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재일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김

종회, 김환기, 박정이, 유숙자, 이한창, 장사선, 추석민, 홍기삼, 허명숙 등은 초기 연구를 주도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이 무렵 연구는 주로 김사량(金史良), 장혁주(張赫宙), 김달수, 김석범, 김학영 등 재일 1·2세대 주류 작가들과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연구 대상과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다. 연구자들은 주류 재일작가들 외에, 사기사와 메구무(鷺沢萌), 양석일(梁石日), 원수일(元秀一), 현월 등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작가들까지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기존 서사 문학과 함께 『삼천리』, 『청구』, 『한양』, 『민도』 같은 재일조선인 발행 잡지, <Go>, <피와 뼈> 같은 각색 영화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국가나 민족 정체성 문제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1980년대 이후 재일문학의 탈민족화·탈영토화 경향으로 이동하였다. 재일문학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동안 재일작가들의 서사는 주로 일본문학과 한국문학의 하위 분야로서 다루어졌다. 일본어 서사는 ‘재일조선인 문학’ 또는 ‘재일한국·조선인문학’으로 명명되어 일본문학의 하위분야로 편입되었고, 한글(조선어) 서사는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른바 ‘재외(한인)문학’, ‘(한)민족문학’, ‘재일 디아스포라문학’ 등으로 규정되어 연구되었다. 각각의 분과학문 연구자들은 재일작가들의 서사를 언어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나 민족 정체성을 중심에 놓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재일조선인 문제가 일본의 전후(戰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재일2세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은 전후 문학이 큰 전환을 맞이한 시기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패전 시에 소년기를 맞았던 세대들의 문학으로 다카하시 가즈미(高橋和巳)로 대표되는 『인간으로서(人間として)』(1970~72)과의 문학이며, 또 하나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에 의한 『내향의 세대(内向の世代)』라고 불린 작가들의 문학이었다.<sup>3)</sup>

1970년대 초 ‘내향의 세대’의 작가들이 등장하여 절정을 이루던 시기에 이것과는 ‘이질적인 흐름’의 하나로 이회성, 김학영, 김석범, 고사명 등과 같은 재일작가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재일작가들은 ‘정치·사상·사회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던 전후 문학의 정통으로 부터 일탈’<sup>4)</sup>하고 있는 ‘내향의 세대’의 작가

3) 松原新一·磯田光一·秋山駿(1978) 『戦後日本文学史年表』 講談社, p.365.

4) 前田愛(2001) 『戦後日本の精神史—その再検討』 岩波書店, p.240.

들과 달리 『인간으로서』 과의 문학처럼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자신의 문학 활동을 이어왔다. 즉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오다 마코토(小田實), 다카하시 카즈미(高橋和巳), 시바타 쇼(柴田翔), 마즈기 노부히코(眞継伸彦) 등이 보여줬던 정통적인 전후 문학의 특징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잡지 『인간으로서』 에는 고사명, 오임준, 김석범, 김태생, 종추월 등 적지 않은 재일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재일사회의 세대교체와 함께 재일문학에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 대한 동질화, 민족의식의 회박화<sup>5)</sup>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강하고 힘찬 것만을 개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개성 또한 있어도 좋지 않을까. (중략)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땅을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sup>6)</sup>는 김창생(金蒼生)의 말이 상징하듯, 주류의 일본문단으로 부터 소외되어 주목 받지 못했으나 2,3세대 재일작가들은 1980년대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지구화 시대 인구의 이동이 일상화되고 국적이나 민족 정체성이 일종의 선택사항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국가와 민족 정체성 중심의 연구 방법은 점점 더 유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재일문학이 탈민족적 글쓰기, ‘재일성’의 해체, 엔터테인먼트 소설 등의 경향을 보이는 것<sup>7)</sup>은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은 자명한 개념도 고정된 정체성도 아니다. 마이너리티는 그 집단이 속한 사회의 구성과 정치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유동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경계도 다수 집단 혹은 주류 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sup>8)</sup> 일본 내 재일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서 오늘날 탈정체화 되기까지 이른 사례는 그 가변적·유동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1980년대 들어 재일 집단이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의 구분 위에 자기 정체성을 사유하려고 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일본의 사회적·정치적 차별에 맞서 일본인도 한국인(조선인)도 아닌 이질적 정체성을 사유하려고 했

5) 磯貝治良(2004) 『<在日>文学論』 新幹社, p.16.

6) 金蒼生(1987) 『座談会 在日文学はこれでいいのか』 『民涛』 창간호, 民涛社 p.81.

7) 김환기(2008)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분화」 『일본학보』 제74호, 한국일본학회, pp.166-173.

8) 신기영(2013)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일본비평』 제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23.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sup>9)</sup>, 재일이라는 역사가 갖는 의미 위에서 사회적·정치적 차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사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일’은 필요 이상의 정치적 존재, 즉 ‘오늘날 국가, 민족, 개인의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온갖 모순을 집약하고 있는 존재’<sup>10)</sup>라고 하는 윤건차의 인식은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재일문학은 작가의 출생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고 여기에 문학적 특징을 부여해 왔다. 전후 재일작가들의 경우 민족과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고, 민족과 국가라는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수교 이후 재일 2세대에게 정체성 선택(한국/북한/일본)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재일내부에서 탈민족화·탈영토화 경향과 함께 정체성에 관한 유연한 입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재일문학 연구는 주류서사와 주변에 위치했던 서사 간 분리된 채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리된 연구는 재일문학을 단순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받은 주류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재일문학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재일문학의 연구 흐름을 참조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1970년대 초 민족과 조국에 대한 정체성에 강한 애착을 드러내왔던 주류 작가들과 달리 주변작가들의 서사가 어떻게 ‘이중의 마이너리티’에 위치해 있는지를 ‘교차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일본사회 내 재일과 계급의 교차성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교포,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 등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재일(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 용어에는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또는 조선인)이지만 결국은 한국인도 아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사회적 ‘차별

9) 이한정(2012) 「‘자이니치’ 담론과 아이덴티티」, 『일본연구』 제17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383.

10) 尹建次(1992) 『「在日」を生きるとは』 岩波書店, p.3.

속으로' 탄생한다"11)는 의미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재일 조선인이 일본에서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의 분배에서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놓여 있음을 잘 증명해 준다.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 집단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은 그 신분과 지위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가와 민족에 따른 차별만이 아닌 재일내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에 의해서도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일이 갖는 국가나 민족의 의미에는 복합적 의미의 차별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 역시 인식되었다.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는 이질적 범주들 간 중첩적 관계 혹은 착종된 관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서사로 읽어낼 수 있다. 교차성 개념은 차별의 어느 한 측면만을 이해해서는 그들이 겪는 전체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양한 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 실존적 경험 또는 차별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억압의 축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 아이덴티티 및 차별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개념으로 교차성 개념이 주목받았다.12)

다양한 사회적 결정 요인들의 교차성에 대한 주목은 기존 재일문학 연구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와 민족 범주를 상대화하는 한편, 국가나 민족 내부에 다양한 층위의 균열이 실재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작가들의 서사는 여러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는 재일이라는 신분에 위치하면서 한편으로 일본문단의 주류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재일내부에서의 차별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그들은 일본문단의 저널리즘의 영역 밖에서 활동해 왔으며, 1970년대 초 일본문단에서 재일문학이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던 때에도 그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작품 활동의 주요 무대 역시 소규모의 동인지나 출판사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13)

실제 조남두(趙南斗), 양순우(梁淳祐), 정귀문(鄭貴文), 최석의(崔碩義), 김재

11) 김응교(2010)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p.129.

12) 신기영(2013)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일본비평』 제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46.

13) 野崎六助(2008) 『魂と罪責』 インパクト出版会, p.220.

남(金在南) 등 재일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수의 작가들은 『삼천리』, 『민도』, 『우리생활』, 『히가시 오사카문학』 등 재일조선인 중심의 잡지나 지역의 동인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재일1세 정귀문(1916)은 1960년대부터 『현실과 문학』, 『히가시 오사카문학』, 『행인사가』 등 지역 잡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오임준(吳林俊, 1926)은 1930년 4세 때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 고베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해방 후에는 재일조선미술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민족학교 교사를 거쳐 창작활동에 전념했다. 시집으로 『바다와 얼굴』 (1968), 『해협』 (1973), 평론으로 『조선인으로서의 일본인』 (1971), 『보이지 않는 조선인』 (1972) 등이 있다.<sup>14)</sup>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두식(張斗植, 1916)은 김달수 등과 잡지 『계림』을 통해 문학동인 잡지 활동을 함께 하였고, 전후 『민주조선』 발행에도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생하여 1923년 일본으로 건너왔다. 주요 저서로는 『어느 재일한국인의 기록』 (1966), 『일본속의 조선인』 (1969), 『운명의 사람들』 (1979) 등이 있다.

경상남도 대구에서 태어나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간 성윤식(成允植, 1930)은 일본문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김달수, 이은직(李殷直)에 이어 재일문학의 일익을 담당했다. 나이는 이들보다 아래이지만 1세대들과 비슷한 개인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의 수난과 생활고, 일본사회의 차별이라는 곤란한 시대 상황이 그의 대표작 『조선인부락』 (1973)에 수록되어 있다.<sup>15)</sup>

재일조선인 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 했던 최석의(1927)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출생하여 양친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1953년부터 1971년까지 재일조선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주로 해방신문사, 조선신보사에서 활동하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절망하여 조국을 이탈한다. 1980년대 들어 조선근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때부터 집필활동을 시작했다.<sup>16)</sup>

재일 2세 박중호(1935)는 홋카이도 출생으로 『민도』 창간호에 발표한 작품 「회귀」가 제22회 홋카이도신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한다. 박중

14) 磯貝治良·黒古一夫(2006) 『<在日>文学全集17』 勉誠出版, 2006, p.371.

15) 磯貝治良(2003) 『新日本文学』 5,6月合併号 第643号, 新日本文学会, p.48.

16) 磯貝治良·黒古一夫(2006) 『<在日>文学全集16』 勉誠出版, 2006, p.478.



호의 작품은 민족, 재일, 차별이라는 역사적 테마를 마이너리티의 고난으로 형상화 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잠재된 마음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받고 있다.<sup>17)</sup> 같은 재일 2세 츠카 코헤이(1948)는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1981년 제86회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재일 2세 대부분의 조선인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 민족적 문제를 강하게 포착하고 있는데 반해 그는 그러한 경향을 무시해 온 작가<sup>18)</sup>로 평가받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작품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재일문학사에서도 세대교체로 인해 재일의식이 변화되고 정착화 지향이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재일작가들은 민족이나 국가 범주를 통해서 삶을 재현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재일은 “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에게 ‘조국’이란 “그들을 키운 일본의 지역사회”였으며, 주요 관심사는 “국가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차별의 철폐나 권익 옹호, 더 나아가서 일본인 주민과의 공생”이었다.<sup>19)</sup> 재일 2·3 세대에게 국가와 민족 정체성 범주는 더 이상 재일 원리가 아니었고, 일본문단에서 재일작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더 이상 그 범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이 차별, 권익, 공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국가나 민족 정체성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내에서 재일조선인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의 분배에서 여전히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일내부로부터의 위계화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일은 민족 차별 문제에서 동시대 일본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태평양 전쟁기(1941~45)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그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 정승박과 김태생(金泰生)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사명(高史明)의 대표 작품을 통해 조선인의 전쟁과 식민지 체험이 ‘재일’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전쟁을 체험한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들의 작품에서는 그 동

17) 磯貝治良(2003) 『新日本文学』 5,6月合併号 第643号, 新日本文学会, p.54.

18) 최효선(2002) 『재일동포 문학연구』 문예림, p.176.

19) 문경수 「자이니치, 3개의 조국 그리고 3개의 시대」, 『실천문학』, 2015.8, pp.333-334.

안 국가나 민족 문제로 인해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재일로서의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구체적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태평양 전쟁기의 여러 시책은 조선인 민중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내지의 탄광, 토목공사 현장 등으로의 연행과 그곳에서의 노예적인 노동의 강제, 병력과 중군위안부로서의 동원 외에도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주입, 언어, 풍속,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일본화=황민화가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sup>20)</sup>

이들 작가들은 1970년대 재일문학이 일본문단에서 주목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던 시기에 주류의 재일작가와 경계의 지점에서 묵묵히 재일의 삶을 형상해 온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종의 마이너리티 서사의 지형도

### : 조선인의 전쟁과 식민지 체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재일작가들이 한편으로 민족과 고향에 대한 민족주의적 애착에 의해 정향되어 있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조선인의 전쟁과 식민지 체험이라는 역사를 배경에 두고 인간의 내면의 문제와 교차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왔다.

1970년대 초 발표된 이종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 중 정승박(1923~2001)의 「벌거벗은 포로」는 1971년 6월 『농민문학』에 발표된 후, 1972년 3월 농민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어 제67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1933년 11살의 나이에 홀로 일본으로 건너 간 정승박은 소위 경제적 하층이라 볼 수 있는 행상꾼, 강제노동, 인부, 선반공, 밀주제조, 파친코 점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인은 총동원 체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고, 징용된 이들은 일본의 전시 관련 산업에 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인해 전시 산업은 전면 해체되고, 재일조선인 대다수는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과 일본생활 정리 문제, 귀국재산 반입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조국으로의 귀국은 보류 혹은 정주를 선택 하면서 60

20) 도노무라 마사루(2010)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p.332.

여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다.<sup>21)</sup>

「벌거벗은 포로」에서 징용공이었던 주인공 승덕에게 회사는 감언이설로 속여 물건 사재기 일을 시켰고, 승덕은 기숙사를 나와 하루하루 물건 사재기를 계속하다 결국 암거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암시장은 정부의 경제 통제 아래 공정가격, 배급제도의 틀 밖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종전을 전후해 극도로 물자가 궁핍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국 각지에서 생겨났다. 처음에는 노점이었다가 점점 판잣집이나 나가야(長屋) 형식으로 변했다.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에는 일본인 귀환자와 복귀병, 전쟁 재해 피해자, 재일조선인, 재일화교도 많았다.<sup>22)</sup> 일본의 암시는 전시기 통제경제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통제경제 이외의 장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암거래 전체를 ‘야미(闇)’라는 용어로 통용했다. 국민 생활의 말단까지 통제하던 전시기에는 암거래가 암암리에 행해졌지만 공권력이 무력해지는 패전이후에는 암시장이 공공의 공간으로 표출되었다. 자발적 혹은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재류하던 재일조선인의 주요일터는 전시산업이나 관련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sup>23)</sup>

승덕은 “그 공장은 기밀보호를 위해서 조선인을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네 지식은 왜 돼먹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sup>24)</sup>라는 경찰의 말에 자신이 물건 사재기를 하러 나간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단지 식량을 운반하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느새 ‘조선인 징용 탈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다. 이후 승덕은 탈주범 신분으로 댐 공사 건설 현장으로 보내진다. 공사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철조망으로 격리된 그곳은 팔로군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다. 철사 줄로 둘러쳐진 담을 허락받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넘는 사람은 완전한 탈주범으로 간주되어 즉각 체재를 받게 되어 있다. 일본당국은 조선인을 동화시켜 전쟁동원의 대상으로 삼은 한편, 후방의 사회질서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인식은 한국 병합시기 부터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극대화

21) 박미아(2017) 「재일조선인과 해방직후 암시장」 『역사연구』 제33집, 역사학연구소, p.4.

22)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2012) 『재일코리안 사전』 선인, p.244.

23) 박미아(2016) 『한국근현대사연구』 76집, 한국근현대사학회, p.252.

24) 정승박(1994) 박정은 옮김 『벌거벗은 포로』 우석, p.38.

되었다.<sup>25)</sup>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조국이 있었다. 지금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조국으로 송환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승덕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 훌륭한 국제법도 자신을 감싸줄 조국도 없었다. 그것보다도 전쟁이 끝나면 징용탈주 죄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오히려 그것만이 걱정이 돼서 최근엔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sup>26)</sup>

인용문과 같이 전쟁이 끝나면 비(非)국민이라는 각인이 찍힐 뿐 아니라, 어떤 처형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승덕은 “공산군 포로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총살될 가능성도 있고, 인간으로서 최저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sup>27)</sup>고 생각한 끝에 탈주를 계획하게 된다. 탈주의 경로는 냄새나는 변소의 푸세 구멍만이 유일하다. 승덕이 결국 변소를 통해 탈주에 성공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평론가 하야시 코지(林浩治)는 정승박 문학에 대해서 “정승박은 김달수나 허남기 등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을 묘사하지도 않았고, 김석범 처럼 전후의 반미운동에 대해 쓰지도 않았으며, 일본에 살면서 받은 차별과 곤란을 규탄하는 작품도 쓰지 않았다. 정승박의 작품은 뼈대가 굵고 극적이다.”<sup>28)</sup>고 평가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 재일의 민족 문제에 천착하지 않는 정승박의 문학적 특징은 목숨을 걸고 살아낸 그의 식민지 전쟁기의 체험이 재일로서의 정치나 이념보다 우선함을 말해준다.

「벌거벗은 포로」에서 정승박은 징용과 탈주, 체포, 팔로군 포로들과의 수용생활, 변소를 통한 탈주라는 극한의 체험을 묘사함으로써 조선인을 고용하는 일본인 고용주와 고용자와의 관계, 즉 일본사회에서 최하층 노동자로서 조선인들이 처한 경제적 위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일 1세 작가로서 민족과 국가에 균열을 일으키는 한편, 민족과 국가의 틈새에 오로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주체성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나에게는 이미 돌아갈 고향도 없고 용기도 없다. 이대로 어물어물 재일생활

25) 水野直樹, 文京洙(2015)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新書, pp.77-78.

26) 주24)와 같은 책, p.72.

27) 위의 책, p.57.

28) 위의 책, p.215.

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sup>29)</sup>는 정승박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재일 1세들이 보였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귀속의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일의 삶을 구성해 왔다.

정승박과 같은 세대인 김태생(1924~1986)은 도일한 시기에 있어서나 일본에서의 하층노동자로서 살아낸 인생 경험 등 재일로서의 삶의 궤적이 정승박과 공통점이 많은 작가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년기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경험을 한 김태생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을 작품 「골편」과 「동화」 속에서 각각 그리고 있다. 아버지와의 갈등과 불화, 친어머니와의 아픈 이별 경험, 재일 1세로서 겪은 역사적 조건은 이후 김태생 문학의 원점이 되고 있다. 가족사의 문제,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과 불화, 어머니에 대한 향수, 고향과 조국, 삶과 죽음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는 미화하거나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표현해 왔다.

‘조용히 말하는 작가’로 평가받는 김태생은 재일조선인의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한사람의 삶을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김태생이 고도성장한 일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의 방법이었던<sup>30)</sup> 김환기의 지적처럼 재일조선인의 삶이 얼마나 역사적인 현실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굴곡진 삶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재일1세의 소박한 작은 삶을 통해 표현해 왔다.

세대적으로는 정승박, 김태생 보다 아래에 해당하는 작가 고사명(1932~)은 1971년 『밤이 세월의 걸음을 어둡게 할 때』를 발표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았고, 전시 하에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의 성장이야기를 그린 1974년 작품 『산다는 것의 의미: 어느 재일조선인 소년의 성장이야기』로 일본 아동문학자 협회상, 제15회 청구상을 각각 수상하며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sup>31)</sup>

대표작 『산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 ‘아버지와 형의 품에서’, ‘처음 마주친 바깥세상’, ‘죽으려고 한 아버지’, ‘조선인이라는 의식에 눈을 뜨다’, ‘사카이 선생님과의 만남’, ‘전쟁과 죽음의 결심’, ‘전쟁의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전적 수기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전 소설은 작가의 기억에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삶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

29) 鄭承博(1990), 「解放直後に出会った同胞」, 『靑丘』 5, p.150.

30) 김환기(2006) 『재일디아스포라문학』 새미, p.323.

31) 磯貝治良·黒古一夫(2006) 『<在日>文学全集11』 勉誠出版, 2006, p.449.

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르이다.<sup>32)</sup> 기억하는 ‘나’는 현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선별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을 구성하게 되며, 자전 소설에는 이야기하는 상황과 이야기되는 상황이 구별되어 제시된다.<sup>33)</sup>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시점이 소년기의 관점과 서술하는 시점에서 느끼는 관점으로 이중적으로 제시되면서, 재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성찰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나가야 사람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나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난이 뭔지 몰랐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으니 가난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학교에 입학해 나처럼 가난하지 않은 일본 아이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과 내가 아는 조선인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닐까’<sup>34)</sup>

재일조선인에게 집, 가정이라는 장소는 자신의 출신, 존재 근거와 맞닿으면서 부정하고 싶은 실체로 간주되곤 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가정과 조선인 마을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처음으로 ‘학교’라는 또 다른 일본 사회를 경험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이 보다 선명하게 상대화됨을 경험한다. ‘나는 왜 조선인으로 태어났을까, 조선인은 왜 모두 가난한 것일까’라는 열등의식과 마이너리티 의식은 결국 반항과 폭력적인 행동에 의한 부적응으로 표출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러한 조선인으로서의 열등의식은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규정하게 만든다.

주인공에게 불행한 가족사를 형성한 원흉으로 비춰지는 작품 속 아버지는 다른 재일조선인 가정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무학, 무식에 거친 폭력과 노름까지 일삼는 난봉꾼이다. 실제 재일 1세들이 일본 땅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토목 공사장이나 탄광에서 하는 고된 육체 노동 뿐이었다. 게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일본인은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다. 이런 재일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비국민 일본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선인 민중들의 삶

32) 정래필(2007) 「자전 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18, p.226.

33) 위 논문, p.229.

34) 고사명(2009) 김옥 옮김 『산다는 것의 의미』, 양철북, p.75.

을 대변하고 있다.

형과 아버지 밖에 알지 못했던 주인공이 ‘긴텐상’이라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되찾고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일본인 사카이(阪井) 선생님과 만남이었다. 사카이 선생님을 통해 소설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가가 제시하는 ‘인간의 상냥함’이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을 체험한다. 수기형식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겪는 극한의 체험, 빈곤과 차별, 재일의 ‘어둠’을 ‘인간의 상냥함’으로 승화시켜 간다는 데 있다.

식민지기와 전쟁 기간 동안 재일조선인은 하층노동을 중심으로 분포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일본의 중앙 문단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며 주류작가들과의 경계에 위치했던 정승박, 김태생, 고사명은 모두 재일의 평범한 개인과 가족,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학적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국가’ ‘제국주의’ ‘식민지’에 밀착되어왔던 재일서사 이외에도 그 안에 다른 층위의 개별적인 ‘재일조선인의 삶’이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나가기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재일문학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재일조선인 발행 에스닉 잡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히 문학 활동을 해온 재일작가의 서사를 ‘이중의 마이너리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비록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재일의 역사성’을 전제로 하면서 묵묵히 나름대로의 저술 활동을 계속하며, 재일문학사의 한 영역을 차지해 왔다. 특히 일본의 중앙 문단에 귀속되지 않았던 정승박, 김태생, 고사명은 재일이라는 마이너리티의 시점에 재일내부의 차별이라는 이중의 마이너리티라는 입장에서든 꾸준히 문학 활동을 통해 재일로서의 삶을 형상화해 왔다.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 조선인 내에서의 신분차별, 조국의 남북분단으로 인한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대립과 같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재일내부의 계급과 같은 차별 범주와 교차하는 방식으로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7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재일문학의 역사는, 특히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

지만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중의 마이너리티 재일서사는 ‘재일’을 구성하는 복합적 의미와 그 변용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 재일의 차별 문제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중의 마이너리티의 의미를 함유한 재일서사가 주류서사 못지않게 재일의 삶을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질적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재일서사에서 다양한 사유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중의 마이너리티에 위치한 좀 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일문학의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의 영역을 좀 더 다양한 층위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사명(2009) 김옥 옮김 『산다는 것의 의미』, 양철북, p.75.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2012) 『재일코리언 사진』, 선인, p.244.  
 김응교(2010)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p.129.  
 김환기(2008)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분화」 『일본학보』 제74호, 한국일본학회, pp.166-173.  
 \_\_\_\_\_(2006) 『재일디아스포라문학』, 새미, p.323  
 도노무라 마사루(2010)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p.332.  
 문경수 「자이니치, 3개의 조국 그리고 3개의 시대」, 『실천문학』, 2015.8, p.333-334.  
 박미아(2017) 「재일조선인과 해방 직후 암시장」 『역사연구』 제33집, 역사학연구소, p.4.  
 신기영(2013)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일본비평』 제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23.  
 이한정(2012) 「‘자이니치’ 담론과 아이덴티티」 『일본연구』 제17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383.  
 정래필(2007) 「자전 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18, p.226.  
 정승박(1994) 『벌거벗은 포로』, 우석, p.72.  
 최효선(2002) 『재일동포 문학연구』, 문예림, p.176.  
 하야시 코지(1994) 『벌거벗은 포로』, 우석, p.215.  
 磯貝治良(2004) 『<在日>文学論』, 新幹社, p.16.  
 \_\_\_\_\_(2003) 『新日本文学』 5,6月合併号 第643号, 新日本文学会, p.48.  
 磯貝治良·黒古一夫(2006) 『<在日>文学全集17』, 勉誠出版, 2006, p.371.  
 \_\_\_\_\_(2006) 『<在日>文学全集11』, 勉誠出版, 2006, p.449.  
 金蒼生(1987) 「座談会 在日文学はこれでいいのか」 『民涛』 창간호, 民涛社 p.81.  
 鄭承博(1990) 「解放直後に出会った同胞」, 『靑丘』 5, p.150.



- 野崎六助(2008) 『魂と罪責』, インパクト出版会, p.220.  
前田愛(2001) 『戦後日本の精神史—その再検討』, 岩波書店, p.240.  
松原新一 磯田光一・秋山駿(1978) 『戦後日本文学史年表』, 講談社, p.365.  
水野直樹,文京洙(2015)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新書, pp.77-78.  
尹建次(1992) 『「在日」を生きるとは』, 岩波書店, p.3.

논문 투고 일자 : 2018.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要旨＞

## 在日作家の二重のマイノリティ叙事研究

梁明心

一九六〇年代後半から頭角を表した在日文学は、一九八〇年代に入ってから日本文学史の一部の領域を占めており、日本文壇で言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その過程で、在日文学のいわば主流作家たちは日本文壇の文学賞に名前が挙がり、文学史に登録されてゆくようになった。その中で、十余名に至る作家たちの主流化と、その他多数の作家たちの非主流化によって、在日文学の領域が縮小される結果となった。

本稿では、在日文学史の中で注目を受けてこなかった叙事を「二重のマイノリティ」という観点から分析を試みた。それは二重のマイノリティ叙事が、まず「在日」という少数者の視点(国家や民族)、そして、在日内部の位階化によるもう一つの少数者として二重的に規定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従って本稿は、二重のマイノリティ叙事の中で在日の歴史性、すなわち民族的・国家中心的意味を受容しながらその変容の可能性を解釈することに注目する。

## A Study on the Narratives of Korean-Japanese Writers as a Double Minority

Yang, Myung-Sim

Korean-Japanese literature started to be noticed in the late 1960s; it has become a part of Japanese literary history and has been mentioned in Japanese literary circles since the 1980s. In this process, a dozen writers who maintained the flow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have won prestigious literary awards in Japanese literary circles, leaving marks on literary history. This made them parts of Japanese literary circle, but the others expelled from it, and, as a result, in turn oversimplified the potentials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In this study, the narratives that have been unnoticed in Korean-Japanese literary histor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double minorities.” These double-minority narratives show that Korean-Japanese writers have been identified as a double minority (first by their nation or ethnic group as a Korean-Japanese [*Zainichi*], and second as another minority due to the hierarchy within Korean-Japanese literary circl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interpreting the possibility of embracing and, at the same time, transforming the historicity, that is, the ethnic and nation-centric meaning of Korean-Japanese narratives in double-minority narratives. .